

영광스런 왕중의 왕 예수님

저는 앞으로 몇주간 예수님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가하게 하시고 그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 :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예수님을 잘 알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정치 강연, 도덕 강연으로 강단을 장식해 봐야 며칠 지나면 다 잊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핵심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 :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구절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신성에 대한 구절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앞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왜 필요한가를 절실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 :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종은 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은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세상의 어떤 인종을 보든지 자기의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그마한 종족도, 아마존 강가 원시림에도, 아프리카의 피그미 족에게 가더라도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왜 모든 인종은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모두 구원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인류가 바라는 구원에 대한 보편적 갈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로마서 8 :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로마서 8 : 23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인종은 왜 구원을 갈망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mortality, 죽어야 할 운명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영원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종이 영원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도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도서 3 :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인간이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종이 구원을 바라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사람은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한 분 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게 되어 있지만 교만에 빠진 인간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만심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들의 보편적 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로마서 1 :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로마서 1 :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 :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로마서 1 :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모든 인간은 자연 만물을 보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지만,
자만심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떨어져,
로마서 1 :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인간 만든 구원의 길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II. 인간들이 만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인간들이 만든, 인간에서 기원한,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철학과 종교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 만물을 바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안에는 신심(神心, god's mind)이 퍼져 있다고 하며, 자연 만물 안에 내재하는 신을 찾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곧 신이다’ 하면서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선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신심이 만물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신심의 씨앗이 심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키우고 배양을 하면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神心을 헤겔 같은 역사 철학자는 절대 정신이라고 부르며, 인간 역사는 변증법적 발전을 통하여 절대 정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절대 정신을 향하여 변증법적 발전을 한다는 말은, 하나의 옳은 것이 생기면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 옳은 것이 생기고, 또다시 반대되는 것이 생기고,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는데 무엇을 향하여 반복하느냐? 바로 절대 정신을 향하여 정반함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인간 안에는 신심이 심겨 있다는 것은, 인간 마음 안에 심기워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또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사람의 마음 속에 남기워 주신 선심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신심과 선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 : 19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철학자와 종교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적 신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 :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 주의의 본질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딜레마는 인간 안에는 선심뿐만 아니라,

타락으로 인하여 악심 또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선심과 악심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면 선심과 악심을 동시에 소유한 인간이 구원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니까?

기독교 이외의 타종교에서는 악한 욕망은 최대한 억제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행을 하는데 역점을 둡니다.

여러분들은 황진이를 아실 것입니다. 요사이 연속극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 연속극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진이가 어느 도를 많이 닦은 스님을, 얼마나 도를 깊게 닦았는지, 그 경지를 시험해보려고 유혹하였습니다. 황진이의 유혹 앞에 그 스님은 일평생 닦은 도가 도로아미 타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경덕이라는 도를 많이 닦은 유학자를 유혹하였습니다.

그 때 유혹하기 위해 지은 시조가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백설이 만곤곤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인생은 한번 가면 끝인데 대강 살면 어떠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설에 의하면 이 유학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경덕이 황진이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유혹의 순간이 한번도 없었을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혹의 순간이 있기는 타락한 스님이나 서경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사람은 행동으로 옮겼고, 한사람은 억제하였을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겼거나 안옮겼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미 타락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억제를 잘했고 한 사람은 억제를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직하게 남의 물건을 보고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선을 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를 많이 닦아도 악한 욕망은 억제될 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마음은 그 사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벌써 간음하였다’ 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성 안에 거하는 죄를, 내재(內在, indwelling sin)하는 죄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 : 17](#) 에서,

[로마서 7 : 17](#)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타락한 인성 안에 거하는 죄, 내재(內在, indwelling sin)하는 죄를 다른 말로 육(flesh, sarx)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인 body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것이 육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그 후손에게 물려 준 것이 육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있는 곳에는 육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를 오래 많이 닦았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성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순간의 유혹으로 인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이 그 후손에게 물려 준 것이 육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있는 곳에는 육이 있습니다. 육은 아무리 도를 오래 닦아도, 제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람은 자기의 선행을 통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종교적 노력을 자력 구원이라 하며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여기에 속합니다.

III. 다음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의 인간의 자력 구원 활동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 남겨 두신 일반 은혜인 선한 마음을 잘 개발하여 선행으로 구원을 얻어 보려고 하는 인본 주의적 활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찾아 오신 종교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여도, 내재하는 죄, 육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타력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아닌 다른 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설 수가 없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찾아 오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구원을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일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깊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옛사람을 고쳐서 잘쓰면 신앙 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만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타락한 우리의 인격을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라 새 것을 창조해 가시는 분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라, 새 것을 창조해 가는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대치하시는 분이 라는 것입니다.

고쳐볼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 다같이 고후 5:17 을 찾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 :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중생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친 피조물이 아니다.

집의 새로운 주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옛것을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대치하시는 분입니다.

새것으로 헌것을 대치하시는 분이시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게 하시는 분이다.

땅의 것은 썩어 못쓰게 되었음으로 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폐차 같은 육에 속한 것은 버려라. 그리고 영에 속한 새 것을 받아라.

우리는 종종 신앙 생활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고쳐서 잘쓰면 신앙 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육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신앙 생활에 승리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손을 들어라!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 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은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는 세 번 용서해주면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일평생 가슴에 묻어 놓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용서는 인적인 것이 아니고 신적인 것이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일곱번도 용서를 못합니다.

울어도 앓습니다. 몸부림쳐도 앓습니다.

육적 사람으론, 옛사람으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안에 오셔서
옛날의 내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만이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사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넘칠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의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새사람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처리를 하신 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애써선 않습니다.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 :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새사람을 말합니다. 중생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합니다.

땅의 것은 썩어 못쓰게 되어 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 것을 주시는 분이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III.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야는 어떤 분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사람만이,

땅에 있는 사람을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자로서 우리와 똑 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 :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하늘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심과 같이 하나님과 땅위에 있는 인간을 연결하시는 분도

한 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100% 하나님이며, 100% 사람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은 비유로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첫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어 만들었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것을 주었지만,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흙에 속한 우리에게 하늘의 형상으로 입혀 주십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종의 시작으로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간으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 :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불교 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불교 신자와 같이 철학도와 같이

매일 땅의 것만 찾아 헤맵니다.

위의 것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16 :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